

사·부·대·중

모성애와 자비



안옥선 철학박사·전남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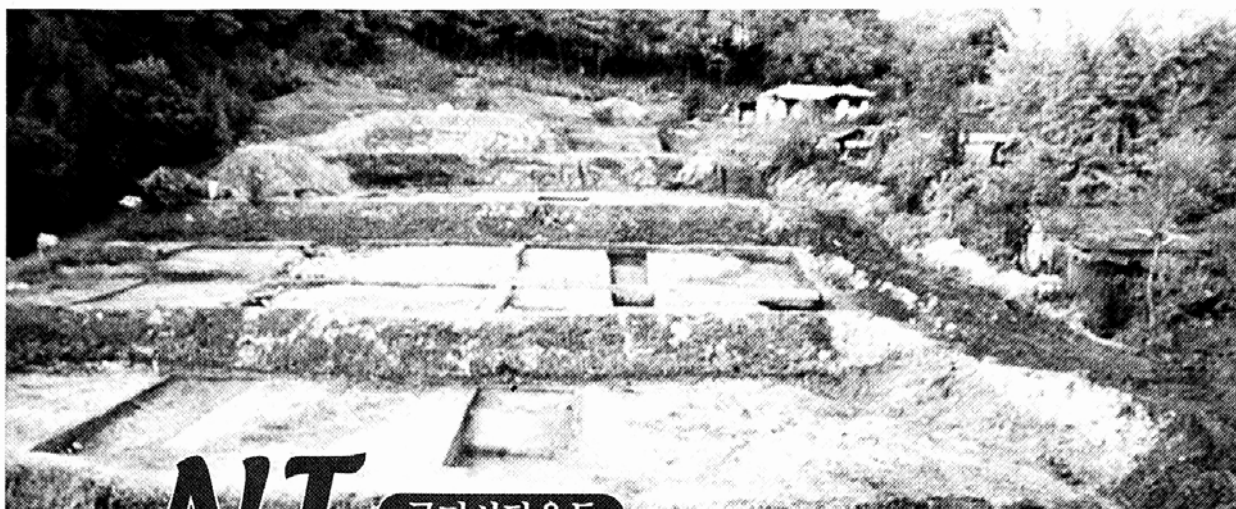
11일 불교학연구회의 추계학술발표회가 있었다. 불교와 페미니즘에 관한 주제는 청중의 뜨거운 토론을 유발시킨 것 가운데 하나였다. 보수적 사상이라고 여겨지는 유교는 이미 작년에 '유교와 페미니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진 바 있다. 거기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불교도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그 연구를 다각화하고 있음을 뜻 깊은 일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남녀차별 문제는 빈부격차, 환경과 파괴, 생명의 도구화 등의 문제와 함께 우리 시대가 피해야 할 수 없는 화두이지 않은가.

그 토론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불교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과 '켄 불교페미니즘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성애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모성애가 역사적으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해 왔음을 주목한다. 그러나 후자는 여성 고유의 것으로서의 모성애가 갖는 가치를 강조하면서 모성애의 상실이 심각한 사회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전자는 모성애가 여성에게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성불평등적·여성억압적 이데올로기로 기여해 왔을

을 문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모성애의 감동적인 힘을 강조하고 모성애 상실에 의한 도덕적 피해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흥미로운 것은 불교페미니즘 주창자들이 '켄 불교페미니즘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성애가 갖는 가치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양쪽이 모성애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문제는 '모성애의 성초월적 수용' 내지는 '전인간의 모성화'일 것이다.

사실상 불교의 자비는 모성애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며 모성애적 사랑을 그 모델로 한다. 모성애가 무조건적이고 비타산적이며 모든 것을 다 바치듯이 자비 또한 그러하다. 모성애가 자신을 일부로 보듯이 자비도 모든 중생을 자신의 몸으로 본다. 모성애가 모든 아이를 동등하게 사랑하듯이 자비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부처님도 '어머니가 외동아들을 사랑하듯이 꼭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생명체)을 사랑하라'고 한다. 요컨대 불교의 자비는 모성애적 사랑을 여성만의 가치가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부여시 왕흥사지. 부여시는 98년부터 왕흥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나, 주변 농가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올해 9월에서야 구체적인 발굴을 시작할 수 있었다. 토지매입을 원칙으로 한 NT는 이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NT 국민신탁운동

"훼손되기 전 땅 사서 문화재 지키자"

문화유산 보호 '새물결'

"폐사지·비지정문화재 관리 적극 활용"

문화재청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이하 NT)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 스스로, 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 데 쓰는 현재 수위의 행정·재정적 지원으로는 시민들의 문화재 애호 욕구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이춘근 기념물과장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과제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기능만으로 온전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사고일 뿐이다"고 말한다.

NT를 우리말로 옮기면 '국민신탁'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자산 기부를 통해, 훼손될 소중한 문화유산과 환경자산을 매입하거나 확보하고, 이를 시민 주도적으로 영구히 보존·관리해 가는 국민운동'이다.

개발의 논리나 자본의 힘에 맞서 '옛 가치'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2년 전 불교계를 흥분시켰던 가야산 해인사 골프장 사건은 그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골프장 건설허가는 취소된 상태지만, 당시 공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관련 건물로부터 직선거리로 2.7km 안팎에서 진행됐다. 공사에 따르는 발파 여진을 감당하기에 너무 짧은 거리였다. 더욱이 해인사 일원 사적 및 명승 지정구역 경계와는 불과 600여m 떨어졌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자연 유산들은 개발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T가 주목받는 이유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문화와 환경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다는 데 있다.

NT운동이 보존할 수 있는 대상은, 보존 가치가 높지만 훼손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생태환경, 경관, 명승지, 문화재 등이다. NT운동은 불교계와 매우 밀접하다. 개발과 절도범의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는 폐사지나 비지정문화재가 NT의 보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폐사지

전국의 폐사지 수는 3200여 개. 경주 황룡사지나 강화 선원사지, 원주 거문사지, 양주 회암사지, 여주 고달사지, 광주 수정사지 등 국가나 지방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을 어귀나 산등성이의 빈터로 남겨져 있는 이름 없는 폐사지일 뿐이다. 일반인들은 그 곳이 사지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밭을 만들거나 묘지로 쓰는 등 훼손하기 일쑤다. 심지어 사지에 남아 있던

유물들은 대부분 비지정문화재인 탓에 절도범의 손을 타기 쉽고, 마을 주민들의 생활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명대 동국대 교수는 "폐사지 보존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해 조계종 문화부에서 북한산성 내 폐사지 20여 곳에 대한 토지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5 곳이 사유지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원주 흥법사지, 화순 공림사지, 예천 개심사지, 서산 보원사지, 장흥 금장사지, 경주 남산리사지 등과 같이 정작 소유권 때문에 보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폐사지들이 수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화순 공림사지나 장흥 금장사지의 경우 해당 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지표조사나 발굴 등과 같은 학술적인 접근 이외에는 어떠한 접근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비지정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펴낸 <전국문화

유적총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파악된 문화유적은 총 3만700여 건에 이른다. 이 중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는 것은 현재 7800여 건에 불과하다.

파악된 문화재와 지정된 문화재가 수적으로 적잖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에 뒤따르게 되는 정비·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보존할 가치를 갖게 된다. 특히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서 훼손·멸실의 위험에 처한 경우 제도적으로는 '가치정'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지만, 대상 선정이 까다롭고 6개월 내에 지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제된다. 비지정문화재 전반에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다.

조명래(단국대) 교수는 "비지정문화재를 NT의 보존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같은 엄격한 규제가 없어 개발과 활용이 수월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NT를 시작한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비지정문화재라도 NT운동을 통해 보존상태가 양호해지고 시민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는 사례가 많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목탁소리

실종된 종무원 복지

김재경 <취재1부 기자>

불교계의 일꾼들인 사찰 종무원 및 불교단체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은 어떨까.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개 일반 기업 급여의 60~7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겨우 먹고 살 정도이며,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질수록 생활고는 더욱 커진다고 한다. 그래서 '불교 일' 하면 '맞벌이'는 기본, '신심'으로 버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가 지난 10월 한달간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및 서울지역 주요사찰, 주요 불교단체 등 34곳을 대상으로 종무원 및 불교단체 종사자들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직장 가입),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도 종무원들의 복지가 열악한가 새삼 놀라게 된다. 조계사 능인선원 봉은사 등 주요

사찰과 생명나눔실천회 우리는선우 실천승회 재가연대 등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구본사의 경우 종무원들이 보험 가입을 요청해도 스님들의 인식부족으로 하지 않고 있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종무원들도 적지 않았다. 불교단체도 사정은 비슷해서 상근직원 수의 미달과 재정 부족으로 보험가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일지리를 잃거나 사고나 병이 생겼을 때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계종이 내년도 중심사업으로 '본말사 행정체계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본·말사 종무원의 신분보장과 급여체계 등을 규정한 종무원 복무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조건 '신심'을 강조하기 보다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적절한 급여로 사기를 올려주어야 일도 잘 하게 되는 법이다. 불교계도 이젠 재가 종사자들의 복지를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강화 선원사지 파수꾼 성원스님



"주변 논밭 신도 경작 유도 난개발 억제"

16일 강화 선원사지 4차 발굴조사 개토식을 가진 선원사 주지 성원스님은, 한국불교 1천 6백여 년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폐사지가 이제는 불교 유적이기에 앞서 지역 유산임을 강조했다.

폐사지에 대한 스님 지론에 따르면, 해당 토지를 되찾는 게 관리의 기본이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만, 스님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선원사지 주변에 있는 논밭 중에는 강화군 소유로 된 것들이 있는데, 우선 신도들에게 이를 논밭을 임대해서 경작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군 소유 논밭은 자주 거둬되는데, 이 때 경작했던 사람이 우선 순위인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저렴하게거든요."

개발로부터 폐사지를 보호하고 또 능력이 되면 사지의 땅을 사들이기가 용이하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또한 지표·발굴조사 역시 땅을 넓히는 방법이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발굴할 수 있는 유물이나 유적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폐사지의 범위를 재조정하기 때문이다.

성원스님은 "절터에 무조건 전각을 세우는 일을 폐사지 복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폐사지는 발굴하고 또 잘 정비해 지역 유산으로 보존하고, 새로운 사찰은 사지 인접 지역에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종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크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크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크스님의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크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찬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합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기도를 해 보시기를!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I.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II.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